

## 부르나이: 부르나이 말레이족(Brunei Malay)



인 구 : 178,000 (Joshua project.net)

언 어 : 부르나이어

종 교 : 이슬람(순니파)

복음주의자 : 0.01%

성경번역 : 미확인

### 개요 / 역사

부르나이 말레이족은 부르나이에서 살던 몇몇 원주민과 그에 동화된 그룹을 일컬어 불리워진 이름이다. 가장 큰 그룹이 말레이족과 케다얀(Kedayan)족이며, 낮은 계급의 크리올(Creole), 키푸트(Kiput), 카얀(Kayan), 남부 비사야(Bisaya)족 등 여러 작은 그룹이 부르나이 말레이족의 인구에 포함된다.

그들이 인종적으로 말레이족과 관련되어 있고 종교도 이슬람을 신봉하긴 하지만 부르나이에는 인접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큰 인종인 말레이족과는 다른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수도에 살고 있는 부르나이 말레이인들의 대부분은 부르나이-무아라(Brunei-Muara)라는 지역에 살고 있으며 또한 해안 경계선을 따라 확산되어 있다. 부르나이 말레이족은 글을 쓸 때는 바하사 말레이어를 사용하지만 말할 때는 부르나이 말레이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말레이어와는 독특한 차이가 있다.

### 생활양식

그들의 다양한 그룹간의 문화와 관습은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자면, 각 촌락마다 지켜오는 '아닷(adat)'이라는 불문법이 다르게 존재한다.

부르나이 말레이인들은 이 땅의 원주민들로서 국가의 자산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누린다. 이슬람 술탄이 광범위한 석유와 매장된 천연가스를 통제하며, 정부의 고용정책 분야에 과여하고 국립대학과의 접촉을 꾀하고 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의학, 교육 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 석유생산으로 얻은 수익으로 인해 부르나이 말레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어 진다.

### 종교

모든 부르나이 말레이인은 오직 샤피 수니파 무슬림(Shafi Sunnis Muslims)으로 태어난다. 이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관행과 신념을 지키는데, 이는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단위 면적당 모스크가 많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들의 종교는 이슬람의 '믿음의 5개 기둥'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그들에게는 알라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만이 그들의 선지자로 믿는다. 하루에 5번의 기도시간과 가난한 사람을 돕고 라마단기간에 금식하며, 적어도 한번은 메카로 순례를 다녀오려 노력한다.

많은 부르나이 말레이 그룹들은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 전체를 특징지으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각 그룹의 신념의 특성보다는 문화적 차이에서 온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들의 신념은 종종 그들 조상의 부족종교로부터 더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 **필요와 기도제목**

최근에 부르나이 말레이인들은 풍부한 석유자원과 술탄의 관대함으로 물질적으로 잘 보호받아 왔으나 그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부르나이 말레이인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적인 충족을 위한 갈급함이 있다. 부르나이 말레이인들 사이에 가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 **참고자료**

<http://www.joshuaproject.net>